

2016년 12월 15일, 한경면 고산리 서안생씨 댁, 김선희 조사.
서안생(여, 1932년생, 한경면 고산리)

[조사자] 이 동네는 도체비는 안 나와낫수과?

[제보자] 이디 도체비는 저, 오디 가면은 추락구지, 질 쪼곰 나가면은 추락구지가 잇어.
그 추락구지에서 그 매고무동산에서 도체비가 나오면 그게 사람 조름에 졸졸졸
졸 쫓아 오다가 동네 들어 와가면 ‘씽’하면서 저 녹고물더레 놀아낫젠헤여.

[조사자] 도체비가 마씸?

[제보자] 어, 도체비가. 도체빗불, 불, 불.

[조사자] 할머니는 안 봐낫수과?

[제보자] 우린 안 봐낫고. 들어본 소리. ‘씽’하게 저 녹고물더레. 그때 우리 시아주범님은
묘제 보러 저 애월 수산더레 가는디 거기가 본 고향인 쟁이라. 이 박씨 집이가.
우리 하르방은 박씨주기. 그디 강으네 묘제 봐아정 낮이 못 오주기. 밤이 오주
기. 밤이 오민 또 매고무동산이엔 헨디 오민 도체빗불이 버릉하게 그디 앗앙. 아
이고 저게 무신 불인고 허당 보민, 하르방 그디 걸어오당 보민 그 불이 ㅊ ㅊ ㅊ
같이 와. 동네 다 오라가가민 ‘씽’하는 소리 나면서 저레 녹고물더레 저레 놀아
가 분다고 그 말은 들었구나.

- 핵심어 : 도체비, 녹고물, 도체빗불, 매고무동산, 사람 조름, 한경면 고산리